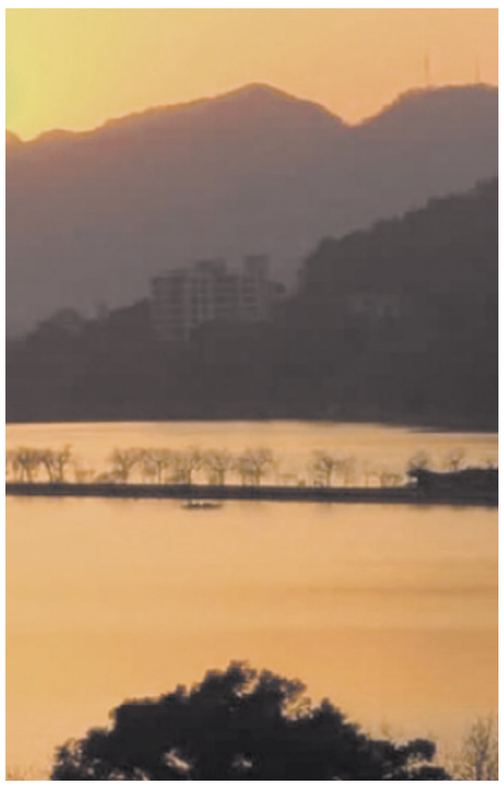
이기는 삶

진정한 용기란

진정한 대의(大義)를 위하여 결정권자의 뜻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묵묵히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



자연에서 용기와 원칙 등 리더의 자질을 배워야 한다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인격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에겐 돈을 잃을 이유는 충분히 있으나 평판을 잃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단기적 성공은 비교적 쉽지만 장기적인 성공은 대단히 어렵다.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뢰와 평판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만이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원칙에 위배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지도자의 의무다. 지도자는 앞에서 끌고 가려고만 하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충실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말이라면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일갈(一喝)이라면 듣기는 싫지만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10번은 이야기해야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준다. 처음에는 듣기 싫어한다. "한 소리 또 하네" 하고 짜증을 내지만 자꾸 반복하면 "어! 정말 중요한가 보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개인은 아무래도 전체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 자신의 부서를 생각하고 그 다음 전체를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눈으로 전체를 보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하던 FTA 협상을 왜, 국회의원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대통령 되고 보니 다르더라."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였다.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5년 단임제다. 한 번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오직 나라만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단임제가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애국자가 된다.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무와 사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도자가 다 잘할 수는 없다.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면 처음에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똥고집은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지도자의 자리는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어떤 결정안이 나오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지도자는 결정권자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조직원들을 선동하여 결정된 안(案)을 뒤집으려는 실력 행사(實力行使)에 들어간다면 결국 조직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되고 만다.

지도자의 자리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조직을 위하여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고민을 해도 더 많이 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번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여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건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묵묵히 따라주는 것도 용기이다.

내가 만약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도자를 이해하자.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것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진정한 대의(大義)를 위한 용기이다.*

속담 속의 영생학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웃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15초간 크게 웃으면 이틀간 수명이 연장된다.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러 매체에서 웃음의 효용성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확실한 사실을 승리제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항상 어디서나 본이 되어야 해요"라는 승리자의 말씀대로 서로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눈에 띄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인사를 실천하고 있다.

"삶의 목적이 웃음이라면 웃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아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승리제단의 구세주께서는 34년 전부터 매일 예배시간에 웃으라 하시며 "웃으면 피가 맑아지고 독소물질이 제거된다, 웃는 사람에게 감로이슬성신이 들어간다, 몸 안에 죄가 눈 녹듯이 없어진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 생명자다, 웃으면 영생의 복이 온다!"라고 외치셨다. 이긴자께서 늘 웃으라고 하시는 것은 웃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 몸에서 기쁨의 물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웃는 마음을 가지면 피가 날로날로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웃으면 엔돌핀이 방출되어 옆 사람도 전염되어 자동적으로 기뻐지게 된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돈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뜻하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참스승이 계신 곳에서 날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불사약인 감로를 몸 안에 차곡차곡 쌓아 저장하여 불로장생의 몸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밝고 밝고 지혜 있는 분들이여! 승리제단에 오셔서 함께 웃으며 진짜 복인 영생의 복을 받으십시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서수사와 양수사의 띄어쓰기

예1)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된다.(X)

교향곡은 4 악장으로 구성된다.(O)

예2) 그 노래는 신세계의 2 악장에 나온다.(X)

그 노래는 신세계의 2악장에 나온다.(O)

위 두 예문에서 앞의 예문에서는 띄어 쓴 것이 맞고, 뒤의 예문에서는 붙여 쓴 것이 맞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수사(數詞) 중의 서수사(序數詞)와 양수사(量數詞)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 양수사는 분량(分量), 즉 한도(限度)를 나타내는 말이다.

2014년이니 제5학년, 28통 5반 등의 '년'이나 '학년', '통', '반' 등은 모두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그 앞의 숫자들은 그 단위를 수식하는 관형사들이다. 이런 서수사는 그 앞의 숫자에 붙여서 쓰기로 되어 있다.

또, 콩 한 말, 왜선 200 척, 네 개의 세계 등에서 '말'이나 '척', '개' 등은 어떤 분량(한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런 말을 양수사라고 한다. 그리고 '한'이나 '200', '네' 등은 역시 관형사다.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교향곡은 네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하고, 두 번 째 예문에서 '그 노래'는 신세계 교향곡의 둘째 번 악장에 있으므로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교향곡 4악장이라고 붙여 쓰면 교향곡의 넷째 번 악장만을 뜻하게 되고, 4 악장이라고 띄어 쓰면 네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므로 전부를 가리키게 된다.

시간을 말할 때의 7시도 서수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기다린 한도를 말할 때에는 '7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이 서수사와 양수사를 잘 구별해서 쓰지 않으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승우 기자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진정한 기도란?

What is the true prayer?

真の祈りとは?

● 인간은 원죄이자 마귀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에 포로가 된 초라한 하나님이다.

Human being is a shabby God imprisoned in the Original Sin and the Evil Spirit, Self-Consciousness "I".

人間は原罪であり，魔鬼の霊である「私という主体意識」に捕虜になったみすぼらしい神です.

●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 영 사탄을 격퇴하기 위함이다.

The purpose of prayer lay not in asking for one's own interests but in repulsing the Evil spirit, Satan.

祈りの目的は自分の利益を得るためではなく，魔鬼の霊であるサタンを無くすためです.

● 자신이 자신의 영을 죽일 수 없다.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완전히 죽여 본 경험이 있는 이긴자의 성령만이 마귀영을 죽일 수 있다.

Satan cannot kill the Satan himself, only the Holy Spirit of the Victor who has ever killed Self-consciousness "I" completely can kill the Evil spirit, Satan.

自分が自分自身の霊を殺すことは出来ません.「私」という自尊心の魔鬼を完全に殺してみた経験がある勝利者の霊だけが魔鬼の霊を殺すことが出来ます.

● 마귀를 죽이는 기도는 이긴자가 이긴자에게 드리는 기도, 이긴자의, 이긴자에 의한, 이긴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Satan-killing prayer should be the prayer from the Victor to the Victor, of the Victor, by the Victor, for the Victor.

魔鬼を殺す祈りは勝利者が勝利者に差し上げる祈り，勝利者の，勝利者による，勝利者のための祈り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마귀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죄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사망의 요소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선악과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 . . . 이것이 도통이다 . . . . . .